





[정답] ④

<비문학 : 제목 붙이기>

설명문에서 제목은 전달하려는 정보를 모두 포괄하여야 한다.

- (1) 첫 단락 : ‘예술의 어원’ - 라틴어나 독일어를 근거로 제시하고 그 의미는 예술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기술들을 포괄하고 있다.
- (2) 둘째 단락 : ‘예술의 의미 변화’ - 18세기 들어서 미적 의미로 한정하여 쓰임. 일반적인 기술과 구별하기 위해 ‘미적 기술’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문 6. 형태소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것은? 2014 지방직 9급

- ① 남겨진 적도 물리쳤겠네.
- ② 너를 위해서 맘을 흘렸어.
- ③ 흠쳐 갔을 수도 있겠군요.
- ④ 단팥죽이라도 가져와야지.

[정답] ①

<이론문법 : 형태소>

- ① 남(어근)+기(접미사)+어(어미)+지(어간)+ㄴ(전성어미)/적(명사)+도(보조사)/물리(어근)+치(접미사)+았(선어말어미)+겠(선어말어미)+네(어말어미) : 12개
- ② 너(명사)+를(조사)/위(어근)+하(접미사)+어서(어미)/맘(명사)+를(조사)/흐르(어근)+리(접미사)+았(선어말어미)+어(어말어미) : 11개
- ③ 흠쳐(어간)+어(어미)/가(어간)+았(선어말어미)+을(전성어미)/수(명사)+도(조사)/있(어간)+겠(선어말어미)+군(어미 ‘구나’)+요(보조사) : 11개
- ④ 달(어간)+ㄴ(관형사형 어미)+팥(명사)+죽(명사)+이(서술격조사 어간)+라도(어미)/가지(어간)+어(어미)+오(어간)+아(어미)+야지(종결어미) : 11개

문 7. 다음 글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2014 지방직 9급

(가) 상품 생산자, 즉 판매자는 화폐를 얻기 위해 자신의 상품을 시장에 내놓는다. 하지만 생산자가 만들어 낸 상품이 시장에 들어서서 다른 상품이나 화폐와 관계를 맺게 되면, 이제 그 상품은 주인에게 복종하기를 멈추고 자립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

(나) 이처럼 상품이나 시장 법칙은 인간에 의해 산출된 것이지만, 이제 거꾸로 상품이나 시장 법칙이 인간을 지배하게 된다. 이때 인간 및 인간들 간의 관계가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다) 상품은 그것을 만들어 낸 생산자의 분신이지만, 시장 안에서는 상품이 곧 독자적인 인격체가 된다. 사람이 주체가 아니라 상품이 주체가 된다.

(라) 또한 사람들이 상품들을 생산하여 교환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경제 법칙을 만들어 냈지만, 이제 거꾸로 상품들은 인간의 손을 떠나 시장 법칙에 따라 교환된다. 이런 시장 법칙의 지배 아래에서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상품과 상품, 상품과 화폐 등 사물과 사물 간의 관계에 가려 보이지 않게 된다.

- ① (가)-(다)-(나)-(라)
- ② (가)-(다)-(라)-(나)
- ③ (다)-(라)-(가)-(나)
- ④ (다)-(라)-(나)-(가)

[정답] ②

<비문학 : 단락의 순서>

단락의 순서는 ‘접속성’과 ‘인접성’을 중심으로 파악한다. 항상 하나의 기준을 잡아야 한다.

먼저 (라)의 접속어 ‘또한’은 (다)에 대한 내용의 첨가이므로 (다) 다음에 (라)가 와야 한다. ①번 제외. 그리고 (나)의 ‘이처럼’은 (라) ‘시장 법칙의 지배하에 사람 간의 관계가 보이지 않는다.’에 대한 결과 제시 ‘인간 간의 소외 관계를 낳는다.’라 했으므로 (라) 다음에는 (나)가 온다. ③번 제외. 또한 (나)의 ‘이처럼’은 전체 결론을 말하고, (가)는 시장에서의 상품의 의미를 나타내는 화제의 제기 부분이므로 결론이 될 수 없다. ④번 제외.

결국 (가): 화제의 제기 → (다): (가)에 대한 부연 설명 → (라): (다)에 대한 첨가 → (나) 결론

문 8. 다음은 연설문의 일부이다. 화자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4 지방직 9급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의 환경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먼저 조금 귀찮더라도 일회용 물품들을 사용하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가 잠깐 쓰고 버리는 일회용 물품들 중에는 앞으로 오백 년 동안 지구를 괴롭히게 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조금 귀찮겠지만 평소에 일회용 도시락과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우리들이 어렵지 않게 지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① 문제 해결을 위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 ②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③ 문제 해결을 위한 기존의 방법과는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④ 문제 해결을 위한 사례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다.

[정답] ②

<비문학 : 논지 전개방식>

앞부분 ‘환경을 위해~일회용 물품들을 사용하지 않도록 합시다.’와 끝부분 ‘지구를 보호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를 종합하면 필자는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도시락이나 종이컵’은 문제 해결을 위한 사례가 아니라 일회용품의 구체적인 예시를 한 것뿐이다.

문 9.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2014 지방직 9급

책은 인간이 가진 그 독특한 네 가지 능력의 유지, 심화, 계발에 도움을 주는 유효한 매체이다. 하지만, 문자를 고안하고 책을 만들고 책을 읽는 일은 결코 ‘자연스러운’ 행위가 아니다. 인간의 뇌는 애초부터 책을 읽으라고 설계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자가 등장한 역사는 6천 년, 지금과 같은 형태의 책이 등장한 역사 또한 6백여 년에 불과하다. 책을 쓰고 읽는 기능은 생존에 필요한 다른 기능들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뇌 건축물의 부수적 파생 효과 가운데 하나이다. 말하자면 그 능력은 덤으로 얻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 ‘덤’이 참으로 중요하다. 책이 없어도 인간은 기억하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표현할 수 있기는 하나 책과 책 읽기는 인간이 이 능력을 키우고 발전시키는 데 중대한 차이를 낳기 때문이다. 또한 책을 읽는 문화와 책을 읽지 않는 문화는 기억, 사유, 상상, 표현의 층위에서 상당한 질적 차이를 가진 사회적 주체들을 생산한다. 그렇기는 해도 모든 사람이 맹목적인 책 예찬자가 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을 더욱 인간적이게 하는 소중한 능력들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책은 결코 희생할 수 없는 매체라는 사실이다. 그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책은 결코 희생할 수 없는 매체라는 사실이다. 그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책은 결코 희생할 수 없는 매체라는 사실이다. 그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책은 결코 희생할 수 없는 매체라는 사실이다. 그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책은 결코 희생할 수 없는 매체라는 사실이다.



- ① 책 읽기는 별다른 훈련이나 노력 없이도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일이다.
- ② 책을 쓰고 읽는 기능은 인간 뇌의 본래적 기능은 아니다.
- ③ 책과 책 읽기는 인간의 기억, 사유, 상상 등과 관련된 능력을 키우는 데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 ④ 독서 문화는 특정 층위에서 사회적 주체들의 질적 차이를 유발한다.

[정답] ①

<비문학 : 내용의 일치>

‘내용의 일치’는 보기가 본문의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 ① 둘째 단락 : ‘책 읽기에는 상당량의 정신 에너지와 훈련이 요구되며, 독서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습관 또한 요구된다.’
- ② 첫 단락 : ‘책을 쓰고 읽는 기능은 생존에 필요한 다른 기능들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뇌 건축물의 부수적 파생 효과 가운데 하나이다.’
- ③ 둘째 단락 : ‘책과 책 읽기는 인간이 이 능력을 키우고 발전시키는 데 중대한 차이를 낳기 때문이다.’
- ④ 둘째 단락 : ‘책을 읽는 문화와 책을 읽지 않는 문화는 기억, 사유, 상상, 표현의 층위에서 상당한 질적 차이를 가진 사회적 주체들을 생산한다.’

문 10. 다음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4 지방직 9급

한 번에 두 가지 이상의 일을 할 때 당신은 마음에게 흠어지라고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집중과는 정반대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마음이 분열되는 상황에 처하도록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도록, 과거나 미래에 사로잡히도록, 문제들을 안고 끙끙거리도록, 강박이나 충동에 따라 행동하는 때가 그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읽으면서 동시에 먹을 때 마음의 일부는 읽는 데 가 있고, 일부는 먹는 데 가 있습니다. 이런 때는 어느 활동에서도 최상의 것을 얻지 못합니다. 다음과 같은 부처의 가르침을 명심하세요. ‘건고 있을 때는 걸 어라. 앉아 있을 때는 앉아 있어라. 갈팡질팡하지 마라.’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은 당신의 온전한 주의를 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단지 부분적인 주의를 받을 가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진정으로 할 가치가 있는지 자문하세요. 어떤 활동이 사소해 보이더라도, 당신은 마음을 훈련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 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사소한 일과 중요한 일을 구분하는 습관을 기르라.
- ② 한 번에 두 가지 이상의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하라.
- ③ 자신이 하는 일에 전적으로 주의를 집중하라.
- ④ 과거나 미래가 주는 교훈에 귀를 기울이라.

[정답] ③

<비문학 : 주제문 찾기>

예시문은 ‘주지-예시-부연’으로 단락이 구성되어 있다. ‘예시’는 추상적 진술인 주지(자신이 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이 분열되는 상황)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며, 뒷부분의 부연은 주지를 강조하는 부분으로 ‘모든 일은 온전한 주의를 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 11. 다음 문장과 관련된 속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4 지방직 9급

그 동네에 있는 레스토랑의 음식은 보기와는 달리 너무 맛이 없었어.

- 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 ② 볶은 콩에 짝이 날까
- ③ 빛 좋은 개살구
- ④ 떡배기보다 장맛이 좋다.

[정답] ③

<어휘 : 속담>

‘보기와는 달리 너무 맛이 없었어.’와 관련 있는 속담을 찾는다.

- ③ 빛 좋은 개살구 : 겉만 번지르르하고 그에 맞는 알찬 내용이나 실속이 없음을 이르는 말
- 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 겉모양이 좋은 것이 그 내용도 좋다는 말
- ② 볶은 콩에 짝이 날까 : 어떤 일이 절대 불가능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④ 떡배기보다 장맛이 좋다. : 겉모양이 보잘것없어도 내용은 훌륭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문 12. 사전 등재 순서에 맞게 배열된 것은? 2014 지방직 9급

- ① 두다, 뒤견, 뒤뜰, 따뜻하다
- ② 남남, 네모, 넘기다, 널리리
- ③ 앓다, 앳되다, 여름, 에누리
- ④ 괴롭다, 교실, 구름, 귀엽다

[정답] ④

<국어어문규정 : 사전 등재 순서>

- (1) 자음 : ㄱ/ㅋ/ㆁ/ㄷ/ㅌ/ㄹ/ㅍ/ㅂ/ㅃ/ㅅ/ㅆ/ㅇ/ㅈ/ㅊ/ㅊ/ㅅ/ㅋ/ㅌ/ㅍ/ㅎ
- (2) 모음 : ㅏ/ㅑ/ㅓ/ㅕ/ㅗ/ㅛ/ㅜ/ㅠ/ㅡ/ㅣ

- ① 두다>뒤뜰>뒤견>따뜻하다
- ② 남남>넘기다>네모>널리리
- ③ 앳되다>앓다>에누리>여름

문 13.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4 지방직 9급

- ①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 ② 사람들의 후원금이 방송국에 답지하고 있다.
- ③ 빙산이 바다 위를 부상하는 것은 온난화 때문이다.
- ④ 세입자에게 밀린 집세를 너무 자주 채근하지 마라.

[정답] ③

<국어어문규정 : 말 다듬기>

- ③ 부유(浮遊)하다 : 물 위나 물속, 또는 공기 중에 떠다니다.  
부상(浮上)하다 : 물위로 떠오르다.
- ① 개발(開發) : 새로운 물건을 만들거나 새로운 생각을 내어놓음.  
계발(啓發) : 슬기나 재능, 사상 따위를 일깨워 줌.

- ② 답지(遷至)하다 : 한군데로 몰려들거나 몰려오다.
- ④ 채근(採根)하다 : 남에게 받을 것을 달라고 독촉하다.

문 14. 다음 글의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4 지방직 9급

우리는 대체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를 서양식(西洋式)으로 꾸미고 있다. “목은 잘라도 머리털은 못 자른다.”라고 하던 구한말(舊韓末)의 비분강개(悲憤慷慨)를 잊은 지 오래다. 외양(外樣)뿐 아니라, 우리가 신봉(信奉)하는 종교(宗教), 우리가 따르는 사상(思想), 우리가 즐기는 예술(藝術), 이 모든 것이 대체로 서양적(西洋的)인 것이다.

우리가 연구하는 학문(學問) 또한 예외가 아니다. 피와 뼈와 살을 조상(祖上)에게서 물려받았을 뿐, 문화(文化)라고 일컬을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이 서양(西洋)에서 받아들인 것들인 듯싶다. 이러한 현실(現實)을 앞에 놓고서 민족 문화(民族文化)의 전통(傳統)을 찾고 이를 계승(繼承)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편협(偏狹)한 배타주의(排他主義)나 국수주의(國粹主義)로 오인(誤認)되기에 알맞은 이야기가 될 것 같다.

그러면 민족 문화의 전통을 말하는 것이 반드시 보수적(保守的)이라는 멍에를 메어야만 하는 것일까? 이 문제(問題)에 대한 올바른 해답(解答)을 얻기 위해서는, 전통이란 어떤 것이며, 또 ( )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 ① 전통은 서구 문화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 ② 전통은 어떻게 계승되어 왔는가
- ③ 전통은 앞으로 어떤 변화를 겪을 것인가
- ④ 전통은 서구 문화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정답] ②

<비문학 : 추론적 독해>

- (1) 첫 단락 : 서구화된 현실 비판
- (2) 둘째 단락 : 부연 설명
- (3) 셋째 단락 : 주지-전통의 개념 정립과 전통이 계승되어 온 과정의 고찰 필요성 주장

문 15. 밑줄 친 단어의 표기가 옳은 것은? 2014 지방직 9급

- ① 어제 선생님을 봣습니다.
- ② 오늘따라 피아노가 잘 안 쳐져요.
- ③ 삼촌이 그러는데요, 민희가 무척 예뻐졌대요.
- ④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두 아이는 쌍둥이예요.

[정답] ②

<국어어문규정 : 한글맞춤법>

- ② 쳐지다 : 동사 ‘치다’의 어간 ‘치-’ 뒤에 ‘-어지다’ 구성으로 쓰이는 보조 동사 ‘지다’가 붙은 형태
- ① 봤습니다 : 봐+였+습니다. 어간 끝 ‘니’가 모음의 어미 ‘었’과 만나 준말이 될 경우 ‘웠’으로 적는다.
- ③ 예뻐졌대요 : 종결어미 ‘-대’는 ‘다고 해’의 준말로 남에게서 들은 말을 대신 전할 때 쓰고, ‘-데’는 ‘더라’의 준말로 자신이 직접 겪은 일을 말할 때 쓴다.
- ④ 쌍둥이+이에요/ (준말) 쌍둥이예요, 쌍둥이+이에요/ (준말) 쌍둥이여요 : 어미 ‘-이에요’와 ‘-이어요’는 복수표준어.



- ④ ‘조심하다’는 동사이므로 명령형이나 청유형 어미와 결합이 가능하다. 다만 ‘건강하다’는 형용사이므로 ‘건강하십시오’나 ‘건강하세요’ 등으로 활용할 수 없다.
- ① 과도한 생략(부당한 공유) : 두 개의 목적어 ‘운동을’과 ‘도시락을’이 하나의 서술어 ‘먹다’를 공유할 수 없으므로 목적어 ‘운동을’과 호응하는 서술어 ‘하다’를 넣어야 한다.
- ② 높임법의 오류 : 주체인 선생님을 간접 높이고 있으므로 간접 높임말인 ‘말씀’으로 고쳐야 한다.
- ③ 과도한 주어의 생략과 주술 호응의 오류

문 18. 다음 글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4 지방직 9급

㉠관용구는 어떤 표현이 습관적으로 굳어져 사용됨으로써 원래의 뜻을 잃어 버린 언어 표현을 의미한다. ㉡‘내 코가 석 자’, ‘배가 남산만 하다’라는 말은 코의 길이나 배의 크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이 표현들을 이루고 있는 단어들의 표면적인 뜻만 가지고는 그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관용어는 우리의 전통 문화를 잘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 ① ㉠은 정의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단락의 완결성을 해치므로 삭제하는 것이 좋다.
- ② ㉡에 제시된 두 예는 원래의 뜻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다른 예로 바꾸어야 한다.
- ③ ㉢은 앞 문장과의 연결이 부자연스러워 긴밀성을 해친다.
- ④ ㉣은 전체 제시문의 주제와 관련이 없으므로 단락의 통일성을 해친다.

[정답] ④

<비문학 : 단락쓰기의 원리>

- ④ 소주제문은 ‘관용구의 개념과 특징’인데 ㉣은 ‘관용어와 전통 문화의 의의’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주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 ① ㉠은 정의의 형식인 것은 맞으나 단락의 완결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 ② ㉡의 예는 원래의 뜻이 아닌 관용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바꿀 필요가 없다.
- ③ ㉢은 ㉡에 대한 해설이므로 ‘즉’이라는 연결어가 자연스러워 긴밀성을 유지하고 있다.

문 19. 밑줄 친 부분이 표준 발음법에 맞지 않는 것은? 2014 지방직 9급

- ① 색연필[생년필] 사러 문방구에 갔다 올게요.
- ② 불뼉더위[불뼉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다.
- ③ 너도 그렇게 차려입으니 옷맵시[온맵씨]가 난다.
- ④ 서점 가는 길에 식용유[시공뉴]도 좀 사 오너라.

[정답] ②

<이론문법 : 표준발음법>

- ② [불뼉더위] : 된소리되기 현상
- ① [색년필] : 소리의 첨가→[생년필] : 비음화 현상
- ③ [온맵씨] : 끝소리규칙, 된소리되기→[온맵씨] : 비음화현상
- ④ [식용뉴] : 소리의 첨가→[시공뉴]

문 20. 다음 글의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4 지방직 9급

베이징이나 시안 등지에서 볼 수 있는 중국의 유적들은 왜 그리도 클까? 이들 유적들은 크기만 한 것이 아니라 비인간적이라 할 만큼 권위적이다. 왜 그런가? 중국은 광대한 나라였다. 그러므로 그 넓은 나라를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천자로 대표되는 정치적 권위가 절실하게 요구되었다. 이 넓은 나라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지방의 반란에 대비하고 중앙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지방 세력가들을 다스릴 수 있는 무자비한 권력이 절대로 필요하였다. 그래서 중국의 황제는 천자로 불리었으며, 그 권위에는 누구든지 절대 복종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므로 중국의 황제는 단순한 세속인이 아니라 일종의 신적인 존재이기도 하였다. 중국 황제의 절대 권위, 이것을 온 천하에 확실하게 보여 주지 않는다면 중국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모를 것이며, 그러면 그 나라는 다시 분열된 여러 왕국으로 나뉘게 될 것이었다. 이런 이념으로 만들어진 중국의 정치적 유물들은 그 규모가 장대할 뿐 아니라 고도로 권위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렇게 광대한 나라는 아니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권위를 강조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한 사실은 조선 시대를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그러나 조선 시대의 왕들은 중국의 황제와 같은 권위를 (㉠)할 수는 없었다. 두 나라의 사회 구조, 정치 이념, 자연 환경 등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이었다. 그로 인해 조선의 왕들은 주변의 정치 세력에 대하여 훨씬 더 (㉡)이어야만 하였다. 더욱이 중국은 황토로 이루어진 광대한 평원 위에 도시를 만들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는 높고 낮은 수많은 산으로 이루어진 지형을 이용하여 왕성을 건설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차이점들이 복합적으로 어울려 양국의 역사와 문화의 성격을 서로 다르게 만들었다. 큰 것이 선천적으로 잘나서도 아니며, 그렇다고 작은 것이 못나서도 아닌 것이다. 한중 양국은 각자의 (㉢)에 따라 오랜 세월을 걸쳐 이처럼 서로 다른 문화를 발전시켜 온 것이다.

- |          |          |        |
|----------|----------|--------|
| ㉠        | ㉡        | ㉢      |
| ① 강조(強調) | 위압적(威壓的) | 전망(展望) |
| ② 향유(享有) | 정략적(政略的) | 능력(能力) |
| ③ 구축(構築) | 타협적(妥協的) | 필요(必要) |
| ④ 행사(行使) | 당파적(黨派的) | 권고(勸告) |

[정답] ③

<비문학 : 추론적 독해>

첫 단락의 중국의 문화적 특성과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은 ‘권위를 세우다’ 또는 ‘권위를 이룩하다’의 의미이므로 ‘구축(構築 : 체계의 기초를 닦아 쌓거나 마련함)’이 적합하다. 또한 뒤의 이유에서도 ‘사회 구조, 정치 이념, 자연 환경 등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이라 했음을 유의한다. 또한 ㉡에는 중국의 황제처럼 권위적일 수 없었기 때문에 주변의 정치 세력에 대하여 ‘타협적(妥協的 : 옳은 원칙과 신념을 곳곳이 지키지 못하고 현실에 적당히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일 수밖에 없었고, ㉢은 한중 양국이 오랜 세월을 걸쳐 서로 다른 문화를 발전시켜 온 것은 많은 차이점들이 복합적으로 어울려 각자의 ‘필요(必要 : 꼭 요구되는 바가 있다)’ 때문이었다.